

부활절 메시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새예루살렘 성에서,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황금길을 걸으며,
그 푸른 생명강가, 생명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 고넬료,
어거스틴, 칼빈, 웨슬리,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가슴에 묻었던 자녀들까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 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월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천세종 협동목사 김철웅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정대는 이진광 고수는 , Vung Zam Cing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권요셉·조에스더,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오리,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율·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나행·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보,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탕, 켄,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쉐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이경범, 알로로, 비시누·보도, 보디소, 포,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주님의 입성을 도운 사람들” ("The People Who Helped Jesus" Entry “)

■ 요 12:1-3, 9-13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입 니다. 예수님의 입성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 님의 입성 전에 있었던 두 명의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 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 람을 살펴보면서, 종려주일에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즐거워하며 환영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어쩌면 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뿐만이 아 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6번 이상,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체포되어,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지만에만 정신이 팔 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유일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 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의 축복만 바라보는 자들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으니, 온전한 헌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출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감출 길 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2. 강력한 간증의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사로를, 절대 로 믿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이, 자기 앞에 살아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도구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 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도구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주님의 대 속의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의 생명을 다한 사랑의 헌신으로 준비합시다. 또한 우리도 나사로처 럼 우리 인생 가운데 겉코 감출 길 없는 생명의 간증으로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넘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아침까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